



간사님! 기도가 막혔어요!

이충성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오후, 라브리에 머물고 계신 손님들이 모두 2층 김정식 홀에 모여 평소와 같이 티타임을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차와 커피, 과자를 먹으며 가벼운 담소를 나누거나 때로는 라브리에서 공부하고 느낀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시간이, 간식을 좋아하시는 라브리 대표 간사님이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 때, 어느 한 자매가 잠시 쭈뼛거리더니 자신의 고민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저... 기도가 막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의 티타임시간 동안 가장 말수가 적었던 자매였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누고 있던 대화를 멈추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음... 기도가 막힌 이유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아닐까요?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막힐 만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지친 상태에서는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불필요하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는 기도가 막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머릿속부터 정리를 해요.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맑은 정신일 때 가장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날 잠시 남자친구와 함께 라브리를 방문했던 한 자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확실히 탈진 상태에서는 기도를 드리기 힘들지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휴식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겠지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을 때, 혹은 화가 났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 간사님의 말씀에 누군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단 이유 같은 걸로요.”

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목소리들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기복(祈福)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맞아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흔히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면서 마치 마술을 부리는 주문처럼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하는 기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저 말씀드리는 기도도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재 좀 흔내주세요.’란 기도도 하는 것 같던데요. 아, 이것도 요구하는 기든가?”

마지막 농담에 다들 킬킬 거렸습니다. 이때부터 티타임은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한 토론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다들 솔직한 대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그 날 있었던 기도가 막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상황은 여러 경우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좀 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교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 필요한 것과 감사드리는 것 등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하듯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중 기도를 할 때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성경말씀을 인용하거나, 각종 추임새를 중간 중간에 잘 넣는 것이 기도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형식적이 되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로 빠지기 쉽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기도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가 친근하게 대화하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성숙해짐에 따라 부모님께 대하는 자세나 말투도 성숙해 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와 같은 말투로 교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말투가 전보다 더 성숙하다고 해서 교제의 등급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제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더욱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의 성장이니깐요.

또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대화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매번 자신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듯 기도는 자신의 모든 생활과 문제를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식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할 때 좋고 예쁘게 보이듯 자신의 기쁨과 고통 등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가 막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아 보세요.

2. 심신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사람간의 대화도 힘들 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힘

들 수 있겠지요. 자신의 상태가 극심한 탈진 상태인 경우에는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이 끝난 후 하나님과 더욱 건강한 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휴식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또 다른 방해요소로 바뀌어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오랫동안 기도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긴 시간 교제가 끊어졌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잠시간의 휴식이 너무 길어져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이 바빠서 기도를 미루다 보니 어느새 기도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기도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기도하는 법을 잠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이상 기도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하며,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생활을 회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힘들겠다고 싶은 경우에는 중재자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와 B사이에 골이 있는 경우 이 양쪽에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나 제사장들과 같은 중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중재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A이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인이고 흠이 없으신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B라는 사람은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했으니 아버지, 받아주세요.”

또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말로만 알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직접 보여주셨으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효과도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지요.

이렇게 가장 완벽한 중재자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심각한 교제의 단절로 그마저도 힘들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장로님과 집사님 등, 신앙의 지도자와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신앙의 동료나 가족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만 남에게 부탁하는 기도는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계신데도 언제까지나 몇 다리나 걸쳐서 교제하는 방법은 그다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적용되기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4. 최근에 지은 죄 때문에

교제의 대상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연락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잘못된 것이 있거나 친구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낫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지요. 이렇게 죄는 죄를 지은 대상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인자한 분인 동시에 죄를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도가 막혔다면 자신이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혹은 자신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있어서 죄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5.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나도록 만든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마치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또한 응답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관계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찬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장 23~24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때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불화를 먼저 해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관계의 불화와 기도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전서 3장 7절)

이 말씀은 남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도 원하십니다.

2) 의심으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야고보서 1장 6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믿기 힘든 걸까요?

의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거나 때로는 내가 요청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요청한 것을 하나님의 순리와 동일시하면 곤란합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3)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잠언 2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듣지 않고 외면할 때는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설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을 멈추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상호간의 교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며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4) 기도의 동기나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만 있었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혹시 자신의 기도가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보는 것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기도 습관을 찾아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온갖 잡생각이 가득한 1시간의 기도보다 차라리 솔직하고 간결한 5분의 기도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2)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악해 보일 때 화가 나서 기도하기 싫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티타임 토론회에선 시간관계상 깊게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악의 정체와 악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는 성인경 간사님의 “악의 문제에 대하여(Facing the Problem of Evil)”라는 글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자료로는 C. S. Lewis의 책,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게 만드시지도 않으셨으며,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된 것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서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브리 티타임 토론시간에서 나온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해 나눌 이야기는 훨씬 더 많겠지요. 이 시간 나누었던 기도가 막히는 원인들은 각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아보았는데 과연 이 모든 문제들이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해결될까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과연 얼마나 해 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재 기도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함을 모를 때조차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알려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것도 곤란하겠지요? 여기에는 피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을 명심해야하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님께 잘못을 고백할 때 부모님께 말 꺼내기 어렵듯,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기쁜 일이나 감사를 전할 때는 정말 행복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오랫동안 막혀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걸지 몰라 고민이라면 우선,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부터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